

겨울철새들이 순천만을 떠나고 있다

고속도로 관통·비닐하우스 증가 등 서식환경 악화
市, 오늘 심포지엄… 가로숲 조성 등 대책 마련 시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는 순천만의 서식환경이 악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대 아생동물 구조센터 원장은 2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순천만 조류 서식환경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철새들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순천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의 순천만 관통, 흑두루미 주요 취식지내 액체비료 살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사업지구 축소, 비닐하우스 증가, 그리고 작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흑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이 악화돼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2일 오후 3시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순천만 자연생태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순천만 보전과 관리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순천만 생태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만 조류서식환경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비롯해

▲순천만 조류 서식환경(순천시청 김인철씨) ▲순천만 갈대현황 및 생태자원 활용의 친환경성 제고방안(순천대박기영 교수 등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김 원장은 “두루미류 월동지가

2006~2007년 대체 들녘에 관광객 증가와 차량 농로 진입 등으로 교란현상이 늘며 해충·율리들을 주요 취식지로 이용했으나, 2008~2009년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각종 소음과 악비 살포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2009~2010년 흑두루미 월동실태를 보면 순천만에서 안정적인 서식지는 대대·인안 들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통과구간은 최소 100m~최대 200m까지 흑두루미의 서식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

다”며 “앞으로 고속도로 외관을 가리는 가로숲 조성과 생태통로 확충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순천만을 찾는 조류 서식환경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서식지 이용현황 조사 ▲볏짚을 남겨두거나 철새쉼터를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구 확대 ▲개체수가 급증한 독수리떼 관리 ▲철새 먹이주기 관리 및 운영체계 일원화 ▲순천만 월동 아생조수에 대한 지속적인 질병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는 11월 5~6일 ‘순천만 생태관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영암 특산물 서울 직거래장터 ‘인기’

영암군이 최근 수도권에서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펼쳐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사)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이 지난 16~17일 서울시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마당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해 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참기름·들기름 등의 가공품과 갈색미·녹미 등 기능성 쌀, 된장·주장, 잡곡류 등 50여 종의 다양

한 농특산물이 출품됐다.

특히 3년전 행사참여 당시에는 영암 농산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300여만 원 정도의 소액판매에 그쳤으나, 올해는 영암군 농특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돼 출품한 농특산물이 전량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 판촉활동 이후 서울에서 택배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제신기자 pjs@

광산구의회 제 171회차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소통이 안되고 있다”, “김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웃말이 무성하다.

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기구설치 조

이 있었고, “안이 회부돼야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때지 않느냐”는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기구설치 조

광산 조직개편 갈등, 지혜 모아야

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구의회에 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질책성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구의회 “입법예고 후에 구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강경

자세로 나가자 양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선 4기에는 정부조정결과를 보자”고 맞서고 있어 얕힌 실라리가 어디에서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法)도 기구도 조직을 위해서

제정됐다. 이 시점에서는 전한(前漢)시대 초대 황제였던 유방의 단

3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법상장’(法三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

지 않을까 여겨진다. wtkee@

記者 目

이 있었고, “안이 회부돼야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때지 않느냐”는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기구설치 조

는 예단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감정처리에서 벗어나 이성처리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변화다.

다면 구의회 “행

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안”이라는 주장에, 구

의회측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결과를 보자”고 맞서고 있어 얕힌 실라리가 어디에서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法)도 기구도 조직을 위해서

제정됐다. 이 시점에서는 전한(前漢)시대 초대 황제였던 유방의 단

3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법상장’(法三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

지 않을까 여겨진다. wtkee@

기원태

<중부취재본부 기자>

이에는 기원태

기원태

<중부취재본부 기자>

기원태